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0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7월 15일) 2020년 9월 2일 수요일

한국 밀교문화 집대성 국내 첫 밀교총람 발간

진각종, '한국밀교문화총람' 29종 34권 완성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국 밀교문화의 모든 것을 담아낸 밀교총람이 발간됐다. 〈한국밀교문화총람〉은 밀교의 이론적 · 문화적 · 교리적 자료를 집대성한 결과물로, 진언과 만다라, 경전 문헌과 의식 등을 총망라해 향후 밀교 연구 발전을 견인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성)은 8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밀교문화총람 조성 사업'의 결실을 공개했다. 〈한국밀교문화총람〉은 한국 밀교의 문화와 역사, 이론 등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조성됐다. 문화관광체육부와 진각종이 각 15억원씩 총예산 30억원이 투입됐으며 집필진만 1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불사다. 무엇보다 국내외에 분산된 밀교 관련 일체의 자료들을 집대성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향후 밀교연구의 기초자료로도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총람 발간을 위해 진각종은 국내 뿐 아니라 인도와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된 밀교 유적들을 답사하고 관련 자료를 총체적으로 수집했다. 수집한 자료 가운데 한국 밀교문화에 관련된 성과는 단행본과 도록 · 화보집 형태로 총람에 담겼으며, 모두 29종 34권의 방대한 분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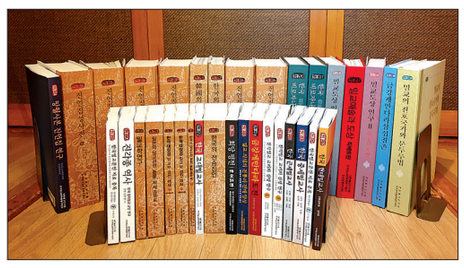
〈한국밀교문화총람〉은 국내 현존하는 모든 육자진언 관련 유물자료를 수록한 제1권 〈한국의 육자진언〉을 시작으로 △한국의 입체 만다라 △한국의 전승진언 △한역대장경 밀교부 경전 해제(고려대장경) △한역대장경 밀교부 경전 해제(신수대장경) △한국의 밀교 관련 경전 문헌 총목록(고려대장경 미수록 경전 및 논문 목록) △일본 밀교관련 논문 저서 총목록 △밀교학 연구(밀교 및 육자진언 관련 논문 발표집) △진언집성사전(5권) 등 경전의 밀교교리와 연구 및 진언 일체를 다뤘다. 이 가운데 특히 〈한국의 전승진언〉은 우리나라에 다양한 형태로 전해진 방대한 육자진언을 수집 · 정리해 도록으로 편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진언집성사전〉은 한역대장경의 진언을 총망라한 결과물로 주목된다.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시기별 밀교역사를 정리한 것도 성과다. 제12권 〈한국 고대밀교사〉는 삼국시대 밀교 역사를, 제13권 〈한국중세밀교사〉는 고려시대 밀교역사를 정리해 수록했으며 조선시대 밀교사를 정리한 제18권 〈한국근세밀교사〉와 제19권 〈한국현대밀교사〉 등 역사를 통해 밀교가 한국 불교문화 및 의식 전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쳐왔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연구가 부족한 까닭에 한데 접하기 힘들었던 밀교 관련 도상도 분야별로 정리됐다. 제16권 〈금강계 만다라 도전〉과 제17권 밀교예술과 도상(티베트편), 제26 · 27권 〈밀교도상 연구 1, 2권〉, 제28권 〈금강계 37존 존상 양식 화보〉가 대표적이다.

한국밀교 대표 종단인 진각종에 대한 이해를 더해 줄 △진각종의 역사 △회당평전 △진각밀교의 교리와 신행 상 · 하권도 포함됐으며, 한국밀교문헌자료총록 상 · 하권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마지막권인 제29권 〈밀교의 진호국가와 문두루법〉은 밀교의 진호국가 사상 논문집과 문두루법 의식 화보집이다. 진각종이 2018년 복원해 재현했던 '문두루법' 관련 자료가 총체적으로 수록됐다. 특히 신라시대 문두루법은 고려시대 호마법과 함께 대표적인 밀교문화로, 무형문화재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에 진각종은 총람 발간을 계기로 이를 복원 · 계승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할 전망이다.


진각종이 발간한 〈한국밀교문화총람〉.

2016년부터 3년 연구 결실로
문체부 · 종단 총예산 30억원
집필 학자만 100여명 참여해
"문화 · 교리 · 역사 연구 토대"

진각종 교무부장 법경 정사는 "지난 3년간 진행된 총람사업은 한국밀교의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며 "특히 한국불교학계에서 밀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고취하고 보다 심도깊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많은 학자와 실무진의 노력 덕분에 총람이 발간됐지만 아직 남아있는 후속 연구과제가 적지 않다"며 "다수의 미공표 도상 및 사진자료 정리, 국외 답사를 통해 확인한 밀교문화의 전개와 전파에 관한 중요 사진자료의 도록화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밀교문화총람〉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과 불교 관련 대학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도록이나 화보집 외 단행본 형태의 일부 서적들은 시중에도 유통될 예정이다. 특히 진각종은 밀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 확산을 위해 이번 총람 발간의 후속작업으로 온라인 버전 제공도 고려하고 있으며, 총람 발간 회향을 기념하는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밀교연구 활성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우린 '방역 스님 어벤져스' 코로나19 재확산이 이뤄짐에 따라 불교계는 현재 방역 조치로 분주하다. 포항불교사암연합회(회장 철산)는 8월 25~26일 포항지역 25개 사찰을 대상으로 방역 봉사에 나섰다. 방역에는 포항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철산 스님을 비롯해 임원 스님 20여명이 직접 방역복을 입고 방역에 나섰다. 사진은 문수사 대웅전과 계단을 방역을 하는 스님들의 모습. **〈불교계 코로나 대응 3면〉** 사진제공=포항불교사암연합회

태고종 前 종정 혜초 스님 원적

열반송 "오고가고 본래 자연이더라"
17~19대 역임… 8월 30일 영결식



태고종 前 종정 혜초당 덕영 대종사〈사진〉가 원적에 들었다.

태고종은 "혜초당 덕영 대종사께서 8월 26일 오전 0시 태고총림 선암사 무우전에서 원적에 들었다"고 밝혔다. 세납 89세, 법납 75세.

혜초 스님은 2004년 종정으로 처음 추대된 이후 2009년, 2014년 재추대되며 2019년까지 종정 소임을 맡는 등 15년간 태고종단 법의 상징으로 종도들의 존경을 받아왔다. 철저한 계행으로 수행자들의 사표가 돼왔으며, 태고종 법맥의 큰 줄기를 형성해 온 前 종정 대륜 스님과 덕암 스님의 수행가풍을 이은 스승이었다.

2004년 17세 종정에 추대된 스님은 당시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특별법문을 발표하고 수행자에게는 부단한 정진을, 재가불자들에게는 청정하고 조화로운 삶을 당부하기도 했다. 스님은 "요즘 젊은 스님들은 힘들게 수행하려 하지 않는다"며 "깊은 신심에서 치열한 정진이 나올 수 있기에 수행자라면 누구나 신해행증(信解行證)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오고 가고 본래 그 자연이고 진실이 자연의 뜻과 같다"는 열반송을 남겼다. 영결식은 8월 30일 오전 10시 선암사 무우전에서 종단장으로 봉행될 예정이다.

혜초 스님은 1945년 청곡사에서 반웅 청봉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46년부터 1949년까지 해인사 불교전문강원에서 중등과와 사집과, 고등과, 대교과를 수료한 뒤 1953년 해인사에서 인곡 화상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이어 1961년 불이성 법륜사에서 전득 덕암 스님을 법사로 건당했다. 1970년 태고종 중앙종회의원에 당선된 뒤 총무원 사회부장과 포교원장, 연수원장, 부원장 등 요직을 거쳐 1996년 제17대 총무원장에 당선돼 종단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불교 포교에도 남다른 업적을 남겼다. 1988년 한국불교포교사 협회장으로 취임해 포교활동에 진력한 데 이어 1993년 미국 전역에서 순회포교 활동을 펼쳤다. 후학 양성 및 태고종의 기틀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에 대통령 동백상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영결식 차주 상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전국 선원 불기 2564년 하안거 해제

진제 스님 해제 법어… "간절한 발원으로 정진"

불기 2564년 경자년 하안거가 9월 2일 해제됐다. 전국 선원들은 해제법회를 열고 100일간의 수행을 마무리했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에서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경자년 하안거 선사방함록〉에 의하면 전국 94개 선원(총림 7곳, 비구선원 57곳, 비구니선원 30곳)에서 총1894명(총림 299명, 비구 1020명, 비구니 575명)의 대중이 용맹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하안거 해제를 맞아 법어를 내리고 대중들의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조석(朝夕)으로 예불할 때마다 큰 발원(發願)을 세워야 한다"며 "역대 제불조사 중 발원 없이 깨친 이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간절한 발원을 세워가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심으로 정진해 나간다면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리라"고 강조했다. **〈종정 및 총림 방장 법어 5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성운대사가 들려주는
불법의 참된 의미

무엇이 부처님의 진실된 가르침인가?
불교의 핵심 개념과 교리에 담긴 참뜻, 즉 부처님이 본래 가르치고자 했던 진실된 의미를 일상적인 예화와 알기 쉬운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불교 입문서!
성운대사 지음/조은자 옮김/384쪽/값 16,000원

방거사의 어록과 시 전편 한국 최초로 완역!
방거사 어록 · 시역주

선의 진미를 맛보다!
이제껏 『속장경』의 방거사어록 3권 중 상권의 어록만 소개되었는데, 중 · 하 권의 시게詩偈와 찬문의 완역으로 드디어 방거사의 진면목을 만나다!
강승욱 역주/양장/528쪽/값 27,000원

한 권으로 일목요연하게 보는
불교의 이해

불교 신행의 입문서이자 불교 이해의 길라잡이!
절집에서 늘 대하고 보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각종 건축물, 그림, 의례, 불보살, 교리, 경전, 문화, 수행 등, 불교의 핵심 코드들을 알기 쉽게 설명!
도후 지음/296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